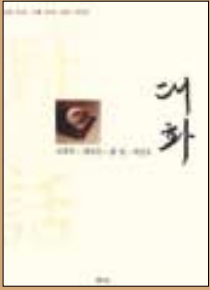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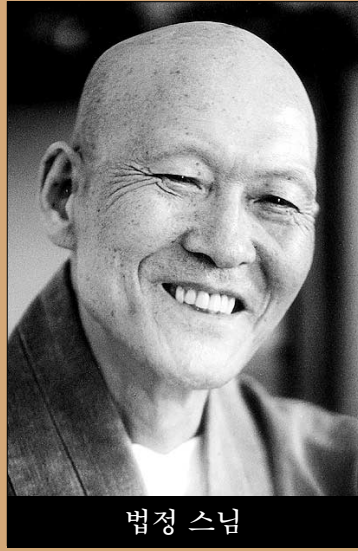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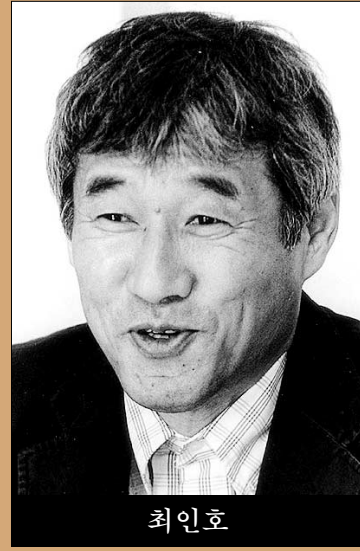
명사 4인이 풀어놓은 인생



대화
피천득, 김재순, 법정, 최인호 지음
샘터 | 9천원



법정 스님



최인호

VS

만남에는 대화가 있다. 그리고 그 대화에는 사람의 향기가 담긴다. 2003년 어느 봄날, 매화 꽃 핀 서울 김상사에서 만난 법정 스님과 소설가 최인호 씨가 나누는 대화가 그랬다.

강원도 오두막집에서 생사를 걸었던 일흔의 출가사문과 스님이 되려했던 예수의 천주교 신자 소설가. 그들이 만나 인생을 말했다. 종교와 죽음, 사랑, 가족, 행복, 교육 등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인생전반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3시간 넘게 풀어놓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월간 '샘터'가 펴낸 <대화>. 우리 시대 지성인 4명의 이야기를 일상의 언어로 담아냈다. 수필가 피천득 선생과 13대 국회의장을 지낸 김재순 샘터사 고문, 법정 스님과 소설가 최인호 씨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와 경륜을 두 편의 대담에서 꾸밈없이 쏟아냈다.

특히 아흔, 여든, 일흔, 예순 줄에 들어선 네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어쭙잡게 살아온 주변 인생들에게 삶의 지혜로 다가온다.

우선 법정 스님과 최 씨의 대화는 '행복'이란 화제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요즘 사람들은 행

복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과 쾌락은 전혀 다른 종류인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최인호)

"안목은 사물을 보는 시선일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갖추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가격이 얼마라는 식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의 가치로 보지요. 이는 똑같은 눈을 가졌으면서도 안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법정 스님)

이들이 공감한 '안목의 차이'는 이후 사랑, 가족, 깨어있음 등의 화제로까지 이어진다. 나눔과 보살핌, 관심을 본질로 한 사람이 소유욕 때문에 '이기적인 흥정'으로 변질했다는 법정 스님의 생각,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공양미 3백석이 우리 마음의 깨어있음을 가르막는 '백'이라는 최 씨의 이야기 등이 바로 그렇다.

법정 스님과 최 씨의 내면성찰은 '바보의 백' 허물기로 정점을 이룬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양미 3백석은 있어야 한다는 자기 논리, 그게 일종의 바보의 백이다. 그 백을 부서뜨려야만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최 씨가 말하자, 법정 스님은 "깨어 있음은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다. 맑고 투명한 영혼과 정신을 지

니는 순간, 바로 그때 본래의 자아로 돌아간다"며 심지어 회두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답한다.

대화의 내리막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기존의 '인식 틀 깨기'로 계속된다. 나눔의 문제로 화제가 모아진다. 먼저 법정 스님은 '배판다'는 말에 상당한 저항감을 표한다. 이 단어에서 수직·주종 관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눔다'라는 말에 수평적인 관계가 담겨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바로 나눔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최 씨는 '너와 나'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불교의 무주상보시가 나눔의 필수 덕목이 된다고 스님의 말을 받는다.

올해 94세인 피천득 선생은 자신의 수필집 제목이기도 한 인연과 예술, 신앙, 여성, 나이 등 들을 주제로 김재순 고문과 이야기를 나눈다. 무엇보다도 피 선생은 "내가 살아오면서 본 것 중에 정말 명성 그대로라고 느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강산 또 하나는 도산 선생이다"라고 도산 안창호와의 인연을 회고한다.

"선생의 삶은 진실 그 자체였죠. 아마 일생을 두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을 듯합니다. 살아보면 부득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생기지만, 도산 선생은 '만약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동지에게 큰 해가 돌아갈 때만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럴 때도 침묵을 지키며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죽음을 대해서도 다뤄진다. 김 고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철학자의 종착지"라고 하자, 피 선생도 "더 이상 모차르트를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만년의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은 날의 욕망, 분노, 초조감 같은 것들이 지그시 가라앉고 안정된다. 죽음도 배워야 한다"고 말을 잇는다.

고령으로 집필활동을 거의 중단한 피천득 선생과 대장암으로 투병했던 김재순 고문, '맑고 향기롭게'의 회주조차 버린 법정 스님과 신문 연재소설 집필로 바쁜 최인호 씨의 대담. 이 책은 좀처럼 성사되지 어려웠던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향기로운 삶이 무엇이고, 영혼을 어떻게 울리는지를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김동선 지음 | 공리출판 | 9천원



"나는 사람이다 고로 늙어간다"는 명제 앞에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늘 핑크빛 희망을 떠올린다. 하루하루 내일을 기다리고 꿈을 꾸다. 시간이 흘러 맞이하는 미래에는 노인으로서의 삶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지 몇십 년 후 당면하게 되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리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로마의 정치가며 문인이었던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 노년의 외롭고 불행한 이유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노년에는 오랜 황해 뒤에 항구에 도착한 배처럼 인생의 원숙함이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것에 반하여 유년기에는 연약하고 청년기에는 인생의 격렬함에 찢어 증년기에는 장중함에 힘겹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심각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나 미흡하다.

일본에서 배우는 행복한 노년

노인정책의 한계와 고충, 새로운 시도

이 책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은 일본 노인정책의 한계와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조명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배울 점을 찾아 나섰다. 효사상과 맹목적 희생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노인과 그를 부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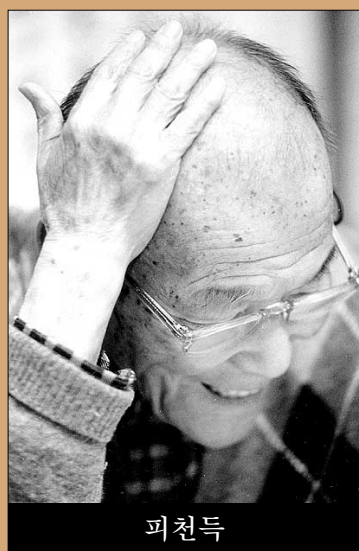
특히 1년에 걸친 취재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바람직한 노인수발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유명한 니가타 현 야마토마치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자세히 다루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식 복지가 가져온 문제점을 기차출신답게 냉철하게 꼬집고 있으며 그 대안은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 부양에 대한 힘겨움은 가족들의 목소리로 이야기 하고 있어 누가 보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본문 중 20년 동안 시부모와 남편을 수발한 5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는 노인수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구체적인 노인관련 통계자료와 참고할 만한 서적과 전문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노인복지나 노인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읽을 만한 참고서다.

현재 우리사회는 노년의 행복과 존엄을 한 개인과 가정이 책임지게 하고 있다. 그 속에서 노인과 부양하는 가족들의 감정적 피폐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고령사회를 겪었던 일본의 야마토마치에서는 노년의 행복과 존엄을 개인과 지역공동체 행정이 나누어 역할분담을 해 그 해결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세 명의 청년의사 활동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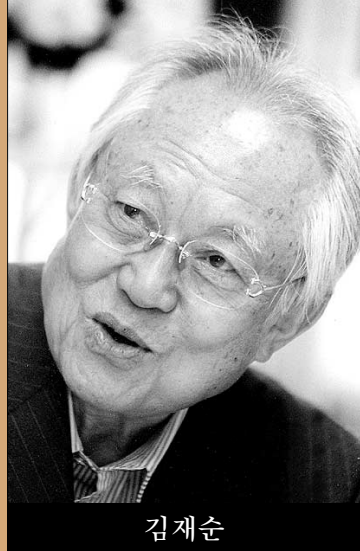
야마토마치를 이끈 청년의사들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선 누가 맡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사회복지나 노인복지실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사유를 하게 만든다.

■송화진 (서울노인복지센터 홍보팀장)



피천득

VS



김재순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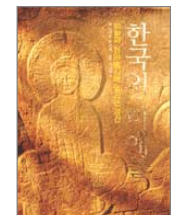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 과 만나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법 신비의 호흡요법



스위머리아 지음, 김만 옮김
신국판 / 240쪽 / 10,000원
관음출판사

한국역 마에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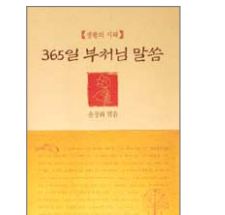
이태호, 이경희 글, 사진 유남재 외
신국판 / 496쪽 / 45,000원
다른세상

쉽고 재미있는 마음공부 명당구리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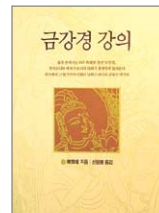
불명자랑(임봉은) 지음
신국판 / 338쪽 / 9,500원
도피안사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희 역음 / 4*6판
287쪽 / 7,500원
동승동

금강경 강의



남희크 지음, 신원봉 옮김
신국판 양장 / 604쪽 / 20,000원
문예출판사

김교수가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김용덕 역음 / 212면
각권 8,000원
도서출판 여신

바로보인 환단고기 1,2,3



문재현 역자 / 신국판
1권 296쪽 / 29,800원, 2권 341쪽 / 29,800원, 3권 341쪽 / 29,800원
바로보인

그 곳에 스님이 있었네



임효림 지음
신국판 / 296쪽 / 10,000원
바로보인
* 이 책을 구입하신 분은 후원 스님의 그림이 있는 단풍을 드립니다.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입니다 ★